

광주일보 제8기 독자위원회 제5차 회의

9월 22일 광주일보 14층 회의실

광주일보 제8기 독자위원회 제5차 회의가 지난 22일 광주시 동구 광주일보 1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하 위원장을 비롯한 임효택·조미옥·이철갑·이수학·강대석·장우철·김남기 위원 등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10명 가운데 아홉 명이 참석했다.

“젊은 독자와 꾸준한 소통…代 이어 보는 신문으로”**강대석** 남도향토문화연구원장

**전남쌀 푸대접·블루오션 다도해 등
지역성 돋보이는 기사 좋았다**

**이수학** 이수학법률사무소 대표

**지역주의 선거 지속되지 않도록
정치개혁 위해 앞장서달라**

**김남기** 광주도시공사 전문위원·서화가

**오랜 역사·전통 가진 신문
젊은 독자 끌어들이길 방안 강구해야**

**임효택** 동일전자정보교 교감

**지역민에게 희망과 활력을 줄
미담기사 발굴해야**

**조미옥** 빛가람중학교 수석교사

**특별기획은 교육과 언론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

△강대석=24면 증면 이후 강화된 문화면에서 알찬 정보가 많아 유익했다. 문화면에서 서평과 문화계 동정 등 행사일정까지 꼼꼼히 챙기는 세심한 배려가 좋았다.

또 지역 기사의 1면 배치가 돋보인다. 9월 11일자 1면 '전남쌀 푸대접'은 전남 쌀이 경기 여주 쌀에 비해 품질이 더 우수한데도 시중에선 소외받는다는 기사로 지역 농민들을 대변해주고 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정보가 되는 기사다. 9월 15일자 1면 마사회 주차장 관련 기사 등 타 언론에서 다루지 못한 사안을 광주일보가 1면으로 다뤄 진실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블루오션 다도해' 시리즈 '전남의 섬, 섬 사람들'은 지면으로 섬사람들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획기사다.

다만, 사설이 기사에 비해 늦게 게재되는 감이 있다. 광주일보가 기사로 비중 있는 진실을 알렸음에도, 해당 사건에 대한 사설은 시일이 걸려 게재된다. 사설만으로는 독자들의 이해를 뒷받침하기가 어렵다. 좋은 기사 만큼이나 가끔적이면 사설과 기사가 동시에 게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이수학=호남권 대표 일간지로서 지역민의 의견과 여론을 광주일보가 대신 호소할 필요가 있다. 지역정당, 정치인들의 동향 등 중앙에서 생산된 기사가 아닌 지역민의 목소리가 담긴 기사를 다뤄야 한다. 지역여론을 반영해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는 정책성 기사를 써야 할 것 같다.

지난 2013년 7월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인구가 광주를 포함한 전남권 인구를 추월했다. 현재와 같은 지역주의 구도에서는 영원한 소수로 남게 될 뿐이다. 정치적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과 인물 위주의 투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치개혁을 위해 앞장서 달라.

△김남기=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광주일보는 '대를 이어 읽을 수 있는 신문'이다. 하지만 정말 대를 이어 읽을 수 있는 신문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신문 구독률은 현저히 낮다. 젊은 독자들을 끌어들이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가 발달하면서 소셜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생산하는 젊은 독자층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60년이 넘는 전통을 유지하는 만큼 그동안 광주일보를 지탱해 준 독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오랫동안 광주일보를 사랑해준 독자들을 발굴해 매달 '에독자 상'을 수여하는 등 소통과 유대를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

△임효택=광주일보가 지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장에서 미담 기사를 많이 발굴하는 것이다. 이는 종이신문 독자들을 유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추석 명절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 분위기를 전환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프로야구 5위 싸움이 치열하다. 지역민의 최대 관심사인 기아타이거즈의 가을야구 가능성을 정확한 데이터로 분석해 예측

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간다면, 독자들은 스포츠면에 관심을 둘 것이고 나아가 신문의 구독률도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

또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북한 선수단 불참과 메르스 등 최악의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광주 시민들의 지력을 이끌어낸 언론의 힘이다. 성공적인 경험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치르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조미옥=광복 70주년 특별기획 '유라시아 대장정'은 교육과 언론이 함께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라는 것을 보여줬다. 대장정에 참가하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독자들에게 생생한 교육현장을 전달해줬다.

또 블루오션 다도해는 배려가 있는 기획이라고 평가한다. 현재 나주빛가람 혁신도시시는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전입한 주민들이 많지만, 이 지역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태다. 남도의 아름다운 곳을 기자들이 현장감 있게 다뤘다. 특히, 신문을 활용한 NIE 수업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큰 흥미를 보였으며, 이 기사를 스크랩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광주일보의 독자는 더는 광주·전남 지역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9월15일자 6면 이순신 유적 붕괴위기 관련 기사는 학부모들이 가장 인상깊은 기사로 꼽았고 찬반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었다. 그런데 '서까래'라는 단어를 모르는 젊은 학부모들이 많았다. 시대 흐름에 따라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 등은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주석을 달아주는 친절함을 더했으면 좋겠다. 최근 이슈가 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도 광주일보의 입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중심 언론의 역할을 해달라.

△이묘숙=세련미를 보였던 광주일보의 편집이 최근 산만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15일 14면 경제면에서는 금호타이어 본교섭 결렬로 파업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는데, 바로 옆 15면 자동차면에서는 금호타이어가 독일의 모터쇼에 참가한다는 기사를 실었다. 파업이 장기화로 치닫는 데도, 사측은 모터쇼에 참가하는 등 자칫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왜곡해 받아들일 수도 있다.

15일 14면 경제면 또한 농협 직거래장터에서 추석용품을 싸게 구입하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는데도, 사진은 신세계백화점에서 실속있는 추석선물을 구입하라는 제목으로 게재되는 등 혼선이 있다. 주독자층이 50~60대인 것을 감안, 종이신문을 펼쳤을 때 편집이 좋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각 지면의 특성을 살리고 제목과 기사의 균형을 맞추는 등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단순히 방문객 수와 개관 효과에 대해서만 기사화할 게 아니라, 오는 11월 정식개관까지 문화전당의 작품을 소개하는 등 방문객들을 위한 정

보를 제공했으면 한다.

△장우철=8월18일 6면 감전 예방장비도 없이 전선의 별집을 제거하다가 다친 소방관을 조명하면서 열악한 현실과 매뉴얼 부재 등 문제점을 잘 짚었다. 광주일보만의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했던 사건인 만큼 모금활동 등 후원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함께 강구했으면 좋겠다. 광주일보가 어려운 지역민을 위해 발벗고 나서 돕는다는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대적 트렌드는 나눔과 공유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나눔과 공유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뤄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 언론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또 광주지역 교통사고 발생률 전국 1위, 전남 사망률 전국 1위 등 교통사고 관련한 기사가 꾸준히 나왔다. 지역의 불명예를 씻어내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는 등 공익을 위한 건인차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더불어 세월호 참사 이후 현장학습과 수학여행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돌고래호 전복 사고로 잊혀졌던 안전불감증이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안전사고에 대해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철갑=무등산 군부대 이전에 대한 기획기사를 끈기있게 다뤘었다. 광주일보가 관심을 놓지 않고 보도해 군부대 이전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줬으면 한다. 또 도시철도 2호선 문제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푸른길 보존과 사업비 문제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광주송정역은 호남을 대표하는 역사라고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다.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도 정책은 지지부진하다. 지역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출해 주고 정책추진에 대한 정치인들의 활동을 재조명하는 등 책적의 역할이 필요하다. 덧붙여 광주송정역의 주차문제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 문제에 대해서도 현장취재를 하는 등 지역민들의 불편해소에 앞장섰으면 한다.

△김윤하=최근 광주일보의 발빠른 소식과 현장감 있는 기사가 눈에 들어온다. 8일자 1면 '청정완도 붉은 바다'라는 기사는 다도해 지역 어민들의 적조 피해를 사진과 꼼꼼한 기사로 다뤄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7일자 3면 돌고래호 침몰 사건도 탑승객 부실관리에 대한 정밀한 취재가 이뤄졌으며, 다음날 입출항 관리 부실 실태를 보도한 점도 돋보였다. 담양 남송창고에 예술품의 웃을 입힌 보물창고로 탈바꿈했다는 내용도 인상적이었다. 지난 9월10일자 6면에 보도된 이산가족 상봉을 기다리는 김성연 씨의 사연을 담은 기사는 전날인 9일 이산가족 상봉 1차 후보자 명단 추첨 있던 날이어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북에 있는 여동생과 주고받은 편지 내용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던 따뜻한 기사였다.

광주일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론직필'(正論直筆)이라는 본연에 자세를 지키며, 지역민을 위해 현장에서 특종을 놓치지 않고 발로 뛰는 언론이 되어주길 기원한다.

/정리=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이묘숙 송은갤러리 관장

**각 지면 특성을 제대로 살리고
독자들 혼동 없도록 편집 강화해야**

장우철 광주재능기부센터 사무처장

**시대적 트렌드인 나눔과 공유
실천하는 언론 역할 필요**

이철갑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지역민 불편·불만의 현장에서
목소리 전달하는 언론 역할 기대**

김윤하 전남대병원 진료 처장

**특종 놓치지 않고 생생한 현장 전달
발로 뛰는 현재의 모습을 잃지 않길**



국립공원 무등산을 품에 안은 **休·安·林**의 궁전호텔 무등파크가 여러분을 **VIP**로 초대합니다

무등파크

고품격 맞춤 웨딩전문호텔

웨딩특전

- 로열 스위트룸 1박 무료 제공
- 사우나 & 조식 2인 무료 제공
- 꽃길(조화) 무료 제공
- 3단계 및 축배용 와인 1병 무료 제공

빔프로젝트, 식사테이블 장식, 페백실 대여, 혼구용품 제공

일반웨딩 200명에서부터 대형웨딩 1,000명 수용 가능
대형 주차장 완비(800대 수용가능)

호텔무등파크

대표 062.226-0011 예약실 062.221-2700